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2. April, 2021. 521~531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1.38.2.521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과의 관계

장현정[1*] · 임동영[2†]

[1]위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경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21년 3월 29일 접수: 2021년 4월 26일 수정: 2021년 4월 28일 채택)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Students' Knowledge on Dementia, Care Performance and Empathy

Hyun-Jung Jang[1*] · Dong-Young Lim[2†]

[1]*Departmen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2]*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University*
(Received March 29, 2021; Revised April 26, 2021; Accepted April 28, 2021)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치매 환자 간호중재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t=-4.03, p<.001)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관심도(F=5.02, p=.008)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돌봄 이행은 임상실습 만족도(F=3.91, p=.023)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지식과 돌봄 이행(r=.21, p=.02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이행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전에 치매 관련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공감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students' knowledge on dementia, care performance, and empathy, thus providing the foundation of dementia patient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for nursing students. For the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this study us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students' year of study and the higher their interest in dementia (F=5.02, p=.008), the higher their knowledge on dementia (t=-4.03, p<.001), and also that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F=3.91, p=.023), the higher their care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nursing students' knowledge on dementia and their care performance

†Corresponding author
(E-mail: dylim117@nate.com)

(r=.21, p=.023) were positively correlat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develop and utilize education programs that can help students gain knowledge on dementia prior to clinical training so that they can have more knowledge on dementia and be encouraged to practice caring for patients with dementia.

Keywords : Nursing student, Dementia, Knowledge, Care Performance, Empath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2040년에는 87.8세로 예상되고[1],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자 및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치매 환자 수는 66만 1천 명(9.8%)으로 추정하고 있다[2].

치매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불안, 초조, 배회 등의 행동장애나 지각, 사고내용, 정서 등의 정신장애에 의해 발현되고, 중기 이후에는 우울을 비롯한 정신적 증상과 폭력, 의심, 욕설 등의 물리적, 언어적 공격행위와 배회 등의 부적절한 행동문제들을 수반하게 된다[3].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임상 실습 중 치매 환자와 만나게 되고, 치매 환자는 증상별로 다양한 행동과 감정을 보이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간호제공을 위한 준비가 강조되고 있다[4].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 환자에 대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나 치매 환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지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 환자를 대함에 있어 치매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간호제공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저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6], 전문지식을 포함한 체계적인 전문 인력으로서의 관련 내용의 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치매 환자의 돌봄 이행은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적, 기술적인 역할이 준비된 곳에서 치매 노인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가정과 동일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일체이다[7]. 노인간호 교육은 1981년부터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교육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간호현장에서 치매 노인 및 보호자에게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간호인력이다[8]. 이중 치매 환자 가족을 대신하여 돌봄 이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은 치매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이처럼 돌봄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삶의 질과 돌봄 이행 수준에 따라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매 환자의 돌봄 이행에 대해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치매 환자를 위해 양질의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중요도 인지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공유를 수반하는 정서 반응이고, 얼굴표정, 말, 행동 등을 통해 타인의 감정 상태를 최소한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10]과 공감적 관심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힘든 경험을 보게 되어 생겨나는 불편감과 불안한 감정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관찰 가능한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돌보는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성[11]을 의미한다.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공감 교육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보게 되면 대화기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가르치게 된다[12].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 될 수 있다[13]. Seo [14]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행위와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의사소통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지각된 동료간 돌봄행위에 유의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공감능력임을 나타내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공감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공감하고, 배려하며, 돌보는 관계는 간호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질 높은 간호제공을 위

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대학 시기부터 필요하다[15]. Yeo [16]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타인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주의가 높을수록 공감이 많음을 나타낸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제공[16]이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특히 치매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언어나 행동을 인정하여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치매 환자에게 진정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기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준비에 필요할 것이다.

간호 교육의 효과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노인 간호를 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공감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17].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미래의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치매 대상자를 만났을 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과 공감능력을 함양하는 훈련, 그리고 치매환자를 접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18]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치매 환자와 관련된 선행연구 주제로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5][9], 치매지식, 부담감, 직무만족도[19], 치매노인 돌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20], 치매간호지식과 공감[21] 등에 대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선행연구는 다양하나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치매 환자를 대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행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치매 환자 간호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N시에 소재한 K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재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에 따라 유의수준(α)=.05, 상관관계 계수(correlation p H1)=0.3, 검정력(1-β)=.95일 때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가 115명으로 산출되었으며, 129부 중 자료가 불충분한 15부를 제외한 11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및 치매에 대한 특성 9문항, 치매에 대한 지식 20문항, 돌봄 이행 23문항, 공감 28문항의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ee [22]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지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치매에 관한 영역별 지식 측정 도구를 Jung [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치매 질병 지식 10문항, 치매 치료지식 3문항, 치매에 대한 지식 7문항으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름은 0점으로 배점하였다. Jung [19]의 연구에서 Spearman-Brown 계수=0.62, 본 연구에서의 Spearman-Brown 계수= 0.70, Cronbach's α=.72이었다.

2.3.2. 돌봄 이행

돌봄 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wang [23]이 개발한 조호활동 실천도구를 Kim [7]이 수정·보완한 돌봄 이행 도구를 사용하였다. 안전관리영역, 건강도모 영역, 의사소통 기능영역,

일상생활 기능영역의 총 23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이행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8이었다.

2.3.3. 공감

공감 측정도구는 Davis [11]의 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Kang 등[2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IRI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8문항 중 7개 문항은 '부정'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역순으로 평가하였다. Kang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7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설문에 의한 조사연구이므로 간호대학생인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에게 조사참여 시 직접적인 위험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한 후 대상자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과 진행기간 동안 대상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거부를 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을 동의서에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매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114명 중 남성 13명(11.4%), 여성 101명(88.6%)이었다. 연령은 평균 24.1세로 나타났으며, 23세 미만은 65명(57.0%)이고, 23세 이상은 49명(43.0%)이었다. 학년은 3학년 55명(48.2%), 4학년은 59명(51.8%)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는 '보통'이 59명(51.8%)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 51명(44.7%)으로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치매 관련 특성 중 치매 환자 간호수행 경험에 대해 '예'를 선택한 대상자가 68명(59.6%)이고, 치매 교육을 받은 경험은 '예'가 103명(90.4%)이었으며, 치매 관련 실습경험은 '예'와 '아니오'가 각각 57명(50%)이었다. 치매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 67명(58.8%)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 환자와의 동거경험은 '아니오'가 98명(86.0%)으로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Table 1〉.

3.2.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공감 정도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20점 만점에 평균 평점 15.96±2.4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치매 질병지식이 평균 평점 7.54±1.66점, 치매 치료지식은 평균 평점 2.63±0.59점, 치매 간호지식은 평균 평점 5.80±1.16점이었다. 돌봄 이행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18±0.37점, 공감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6±0.3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매 관련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과의 차이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t=-4.03, p<.001), 치매에 대한 관심도(F=5.02, p=.00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학년이 3학년보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다. 돌봄 이행은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91. p=.023).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인 경우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돌봄 이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연령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43. p=.001) 23세 미만이 23세 이상보다 공감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General and Dementia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Sex	Male	13(11.4)	
	Female	101(88.6)	
Age	<23	65(57.0)	
	≥23	49(43.0)	24.11±5.85
Grade	3rd	55(48.2)	
	4th	59(51.8)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Satisfied	51(44.7)	
	Moderate	59(51.8)	
	Dissatisfied	4(3.5)	
Nursing Experience for People with Dementia during Clinical Practice	Yes	68(59.6)	
	No	46(40.4)	
Educational Experience of Dementia	Yes	103(90.4)	
	No	11(9.6)	
Dementia relate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57(50.0)	
	No	57(50.0)	
Interest in the Dementia	High	44(38.6)	
	Moderate	67(58.8)	
	Low	3(2.6)	
Living Experiences with the Cognitive impaired Patient	Yes	16(14.0)	
	No	98(86.0)	

Table 2. Level of dementia Knowledge, Care Performance and Empathy (N=114)

Variables		Mean±SD
Dementia Knowledge		15.96±2.46
	Knowledge of Dementia Disease	7.54±1.66
	Knowledge of Dementia Cure	2.63±0.59
	Knowledge of Dementia Care	5.80±1.16
Care Performance		4.18±0.37
Empathy		3.46±0.33

Table 3. Difference of Knowledge toward Dementia, Care Performance and Empathy according to General and Dementia related Characteristics

(N=114)

Variable	Categories	Dementia Knowledge		Care Performance		Empathy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Sex	Male	0.80±0.07	.28 (.781)	4.03±0.37	−1.51 (.134)	3.35±0.39	−1.33 (.188)
	Female	0.80±0.13		4.20±0.37		3.48±0.32	
Age	〈23	0.80±0.12	.02 (.983)	4.15±0.32	−.91 (.366)	3.55±0.33	3.43 (.001)
	≥23	0.80±0.13		4.22±0.43		3.34±0.30	
Grade	3rd	0.75±0.14	−4.03 (〈.001)	4.16±0.38	−.50 (.621)	3.47±0.34	.24 (.814)
	4th	0.84±0.09		4.20±0.36		3.45±0.33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Satisfied[a]	0.82±0.11	1.50 (.228)	4.27±0.38	3.91 (.023) a〉b	3.54±0.27	2.70 (.072)
	Moderate[b]	0.78±0.13		4.09±0.33		3.40±0.37	
	Dissatisfied[c]	0.75±0.11		4.35±0.53		3.40±0.39	
Nursing Experience for People with Dementia during Clinical Practice	Yes	0.81±0.12	1.49 (.139)	4.15±0.37	−.85 (.395)	3.47±0.34	.41 (.685)
	No	0.78±0.13		4.22±0.37		3.45±0.33	
Educational Experience of Dementia	Yes	0.80±0.12	1.48 (.141)	4.20±0.37	1.96 (.052)	3.44±0.31	−1.94 (.078)
	No	0.75±0.14		3.97±0.35		3.70±0.45	
Dementia relate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0.81±0.11	1.20 (.231)	4.21±0.37	.76 (.446)	3.45±0.30	−.24 (.811)
	No	0.78±0.14		4.15±0.38		3.47±0.37	
Interest in the Dementia	High[a]	0.84±0.10	5.02 (.008) a〉b	4.22±0.37	1.60 (.206)	3.51±0.35	1.10 (.337)
	Moderate[b]	0.77±0.13		4.17±0.38		3.44±0.33	
	Low[c]	0.75±0.13		3.83±0.13		3.26±0.22	
Living Experiences with the Cognitive impaired Patient	Yes	0.79±0.13	−.26 (.794)	4.13±0.32	−.60 (.553)	3.44±0.38	−.28 (.783)
	No	0.80±0.12		4.19±0.38		3.46±0.33	

Table 4. Correlation among Dementia Knowledge, Care Performance and Empathy

(N=114)

Variables	Dementia Knowledge	Care Performance	Empathy
	r(*p*)		
Dementia Knowledge	1		
Care Performance	.21(.022)	1	
Empathy	.06(.511)	.12(.206)	1

3.4.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공감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돌봄 이행(r=.21, *p*=.02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치매 환자 간호 중재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평균 평점 15.96±2.46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치매 질병지식이 평균 7.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료지식이 평균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치매센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 Han 과 Kim [25]의 연구에서 18.14점으로 나온 것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하위영역 중 치매 질병지식이 가장 높고 치료지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25]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은 대상자별에 따른 임상경력의 차이로 인해 전문지식 습득 정도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치료지식에 대해 대상자 모두 동일하게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지식 도구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분석에는 제한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와 Kim [5]의 연구에서는 15점 만점에 9.7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연구[5]가 치매 파트너 활동경험이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2~4학년과 3, 4학년에 대한 치매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지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동일도구를 적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돌봄 이행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18±0.3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이행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었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6]의 연구에서는 3.9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직접적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돌봄 이행에 대해 단순히 자신들이 지각하는 부분을 조사한 부분이므로 실제적인 돌봄 이행 실무 제공자들의 점수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공감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6±0.33점으로 나타났다. 치매와 관련된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이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에 대한 연구[27]는 각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이 3.05~3.68로 나타나 전체 평균 평점에 대한 분석은 없었으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사의 공감에 대한 연구[28]는 하위영역 평균이 2.97~3.58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공감이 간호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타인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부분이 간호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치매 관련 특성 중에서는 치매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은 3학년보다 4학년에게서 지식 정도가 높았으며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치매 지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구가 상이하나 Jo 등[5]과 Kwon과 Lee [6]의 연구에서 치매 관심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치매 지식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즉,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에 대

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열의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치매 예방을 위한 지식제공에 앞서 학생들에게 치매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돌봄 이행은 일반적 특성의 임상 실습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임상 실습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돌봄 이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간호 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자신감에 영향을 주고 돌봄 이행이 높게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치매 관련 돌봄 이행에 대한 선행논문이 없어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비교에 제한이 있으나 Seo [14]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동료간 돌봄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돌봄 이행을 잘한다고 하였다.

돌봄은 간호의 본질이자 간호 실무의 핵심이며 [14], 간호지식, 간호활동 및 긍정적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29]. 따라서 간호와 관련된 만족도가 높을 때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돌봄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Noh, Lim과 Hur [30]의 연구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이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상이하기는 하나 간호대학생의 치매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면 돌봄의 이행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공감은 일반적 특성의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3세 미만이 23세 이상보다 공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관련 연구는 아니나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대해 Jeong과 Lee [13]의 연구결과에서 하위영역의 인지적 공감 중 '상상하기' 부분에서만 21세 이하가 22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연구도구 및 대상자가 상이하긴 하나 Baek [21]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지식과 공감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공감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치매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 치매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인지적 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31].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16][32] 중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 능력의 차이에 대해 학년에 대해서 학년이 높을수록 공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고학년의 경우 공감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저학년보다는 높았을 것이며 실습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인식수준의 향상으로 공감 능력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16].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대한 결과들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치매 지식과 돌봄 이행과는 순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치매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대상자에 대한 간호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좀 더 돌봄에 대한 행동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Yun과 Ryu [20]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매 지식과 돌봄 행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이 행위를 형성하는 조건이지만, 지식의 전달이 행위를 유발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3]. 이에 지식을 통한 행동의 향상을 위한 방법 중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치매 환자 간호의 까다로운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접근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34].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이행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전에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공감은 치매에 대한 지식과 돌봄 이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와 관련된 공감의 직접적인 연구도구가 아님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며 추후 치매 관련 공감도구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공감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대상자를 이해하는 공감 부분이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하여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치매와 관련된 공감을 하더라도 실제 돌봄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성 때문에 상관성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 치매 환자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가 없는 경우 간호제공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간호대학생에게 치매 환자에 대한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공감이 실제 지식이나 돌봄 이행과의 상관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치매에 관한 지식향상을 위한 교육은 치매 환자 간호에 있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이는 치매 환자에 대해 공감하여 환자중심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35] 이들 변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치매 환자를 대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행위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 치매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돌봄 이행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공감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치매에 대한 지식이 돌봄 이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질 높은 간호제공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실습 전 치매 환자 간호를 위한 전문지식 및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 중 치매와 관련된 치매 돌봄 이행 및 치매 관련 공감에 대한 도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도구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대부분의 치매간호 관련 연구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의 실무자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예비 실무자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치매 관련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Ienternet]. “Population Projections by Province: 2017-2014”, 2019. [cited 2019 July 2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5555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enternet]. “Korea Dementia Observatory 2017”, 2018. [cited 2019 August 14] Available from 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172
3. Alzheimer’s Association, “2015 Alzheimer’s disease facts and figures”, Retrieved March 18, 2015, [cited 2019 August 20] Available from http://www.alz.org/facts
4. S. K. Das, S. Pal, M. K. Ghosal, “Dementia: Indian scenario", *Neurology India*. Vol.60, No.6, pp. 618-624, (2012). https://doi:10.4103/0028-3886.105197.
5. S. H. Jo, E. H. Kim, “A Convergence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Dementia Partner Nursing Students on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7, pp. 317-323, (2018).
6. M. S. Kwon, J. H. Lee,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9, pp. 177-185, (2017).
7. H. H. Kim, “The Effect of Geriatric care Helper's Knowledge of Dementia on Job stress, Self-Efficiency and Care Fulfill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gu Haany University, Gyeongbuk, 2004.
8. S. J. Park, K. S. Park, Y. J. Kim,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 4467-4477, (2015). https://doi:10.5762/KAIS.2015.16.7.4467
9. D. R. Kim et. al. “Factors Affecting Social Dista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Older Adults with Dementia: Focusing on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Ageis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7, pp. 373-381, (2019). https://doi.org/10.15207/JKCS.2019.10.7.373
10. J. Decety, P. L. Jackson, "The functional architecture of human empathy", *Behavioral Cognitive Neuroscience Reviews*, Vol.3, No.2, pp. 71-100, (2004). https://doi:10.1177/1534582304267187
11.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10, pp. 85-103, (1980).
12. S. H. Park,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umsa. 1997.
13. H. S. Jeong, K. L. Le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5, pp. 2635-2647, (2012).
14 J. Y. Seo, "Relationship among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and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3, No.4, pp. 61-71, (2019). https://doi.org/10.34089/jknr.2019.3.4.61
15. C. Richardson, M. Percy, J. Hughes, "Nursing Therapeutics: Teaching Student Nurses care, Compassion and Empathy", *Nurse Education Today*. Vol,35, No,5, e1-e5, (2015). https://doi.org/10.1016/j.nedt.2015.01.016
16. H. J. Yeo, "Predictors of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 177-184,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77
17. K. A. Choi,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6).
18. M. H. Lee, M. H. Park, "Th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o empathiz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attitudes and pain in people with dementia", *Korean Society of Medical Sciences Conference.* pp. 332-332, (2016).
19. S. M. Jung, "A Study on Caregiver's Knowledge Burden on Dementia and their Job satisfaction level in Nursing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20. S. W. Yun, S. A. Ryu, "Impact of Dementia Knowledge, Burden from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and Empathy in the Caring Behavior of Certified Caregivers in Nursing Homes",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17, No.3, pp. 131-141, (2015). http://dx.doi.org/10.17079/jkgn.2015.17.3.131
21. K. M. Baek, "Empathy for Dementia Patients and Knowledge to Dementia Care in Nursing Geriatric Hospit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2017).
22. I. J. Lee, "A Research on the Understanding of Dementia by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Gangwondo, (2002).
23. S. Y. Hwang, "A Study on the levels of Dementia-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among Nursing Assistants Caring for Institutionalized Elders with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1999).
24. I. Kang, et.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 Association*, Vol.48, No.5, pp. 352-358, (2009).
25. I. S. Ko, E. K. Han, D. R. Kim, "Relationship among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Care Burden of Nurses in Center for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9, pp. 67-75,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9.067
26. J. Y. Kim, "The Effect of Caregiver's Dementia Problems on the Elderly

Recognition and Caring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ya University, Gyeongbuk, (2020).
27. N. Y. Lee, "The Effects of Empathy and Life Stress on Stress Coping Strateg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2016).
28. H. S. Jung, "The Effect of Empathy on the Job Stress amo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6, pp. 3911-3918,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11
29. J. Watson,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Sudbury, Messachusett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1999).
30. J. H. Noh, E. J. Lim, J. Hur, "The Factors Influencing Careworker's Care Performance for Elders with Dementi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 No.3, pp. 75-84, (2012).
31. M. H. Lee,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 Dementia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Pain Assessment in Patients with Dementia: A Mediation Model",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Society*, Vol.21, No.1, pp. 41-49, (2019). http://dx.doi.org/10.17079/jkgn.2019.21.1.41
32. H. J. Kim, M. S. Yi,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 237-245, (2015).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37
33. J. Hui, Y. Wenqin, G. Yan, "Family-paid Caregivers in Hospital Health care in China",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21, No.8, pp. 1026-1033, (2013). http://dx.doi.org/10.1111/jonm.12017
34. V. L. Haugland, M. H. Reime, "Scenario-based Simulation Training as a Method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Competence in Demanding Situations in Dementia care. A mixed Method Study", *Nurse Education Practice*, Vol.33, pp. 164-171, (2018). https://doi.org/10.1016/j.nepr.2018.08.008
35. R. Digby, A. Williams, S. Lee, "Nurse Empathy and the Care of People with Dementia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34, No.1, pp. 52-59, (2016).